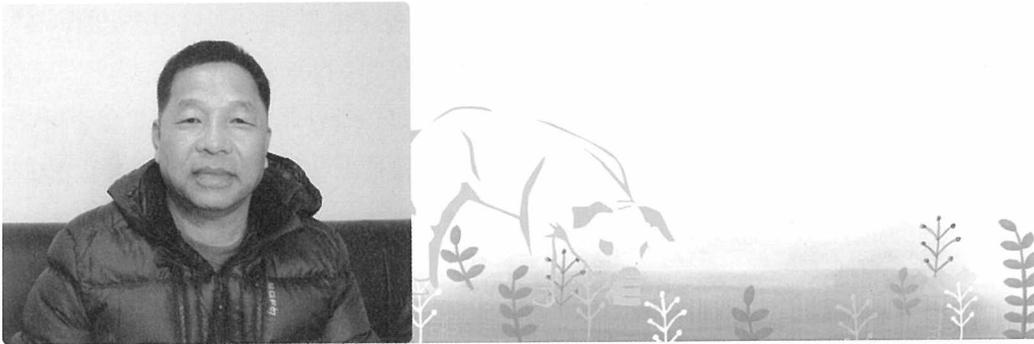


‘이래서 대통령상!’ 돼지 김영진 농가 방문기

고객홍보팀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최초의 대상 수상 농가. 그 의미만큼 커다란 기대를 품고 농가 방문을 요청했다. 상대적으로 방역에 취약한 돼지임을 알지만 실제로 농가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너무 커 도전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꼬불꼬불, 임시포장 같은 시멘트 포장 1차선 도로를 타고 이어진 길. 산길, 들길을 거쳐 내비게이션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될 때쯤 농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접하게 된 곳은 방역구역. 농장에 들어서기 전 대인방역을 위한 부스와 차량 방역을 위한 시설이 먼저 방문객을 맞는다. 들어간 부스 안에는 방명록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방문기록이 꼼꼼히 관리되고 있었다. 농가로 올라가는 길에도 방역 관련 알림이나 시설 등은 계속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생각보다 꽤 큰 농장 규모에 놀라고 있을 때, 농장주 김영진 씨가 등장했다. 아들과 퇴비 처리 일을 살피던 중이었다고 했다.(퇴비 처리에 한창이었던 덕분에 진한 향기에 폭~ 빠져볼 수 있었다는 건...)



“아들은 축산전공을 해 이쪽 지식을 제대로 쌓고 왔습니다. 경험 쌓고 오라고 졸업 후에는 큰 농장에서 2년여 일하다 오게 하기도 했지요.”

김영진 씨가 처음 돼지사육을 시작한 것은 1993년. 20년이 훌쩍 넘었다. “힘든지 모르고 일했다.”는 말답게 성실히 일한 결과 규모의 확대는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크게 위세를 떨쳤던 썬코바이러스였다. 이 바이러스로 인한 만성 소모성 질병으로 그는 농장 문을 닫았다. 20여년의 돼지사육 이력 중 단 한 번도 질병 앞에 무릎 꿇은 일이 없는데, 이때가 유일했다. 유일하지만 타격이 컸다.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 방역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걱정된다 싶으면 농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3군데 정도 생석회를 뿌려 유사시에 대비합니다. 지난 번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한동안 아무도 농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외부인도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어요. 약품 같은 물건을 받아야 할 게 있으면 저 아래(말이 그렇지 거의 마을 두세 개쯤 거리다.) 주유소에서 받아오고, 사료처럼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하는 경우에는 두 번 세 번 소독했지요. 덕분에 근처 농가들 대부분 구제역에 걸릴 때도 저희는 아무 피해 없이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 농장일을 하게 된 때도 썬코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았을 때다. 김영진 씨는 썬코바이러스로 인한 타격으로 3년간 농장을 쉬었다. 그리고 2009년 후보돈을 모으며 재기했다. 3월부터 후보돈을 나눠 들여오기 시작했는데, 그해 총 220두를 들여오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을 아들이 함께 했다.

이후 이들은 합심해 농장규모를 꾸준히 키웠다. 하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도 점점 쌓였고, 그 결과 지금은 모든 190두를 포함해 2,5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 출하는 매주 빠짐없이 하고 있는데, 고객홍보팀이 방문하기 전날에도 84두를 출하했다고 했다. 1달에 320두, 1년에 4,000여두를 출하했다. 1등급 이상 출현율은 87.1%, 1+등급 이상 출현율도 53.7%에 달한다. 각각 64.6%, 29.1%인 전국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금은 실질적인 농장관리를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뇨관리나 경영 쪽, 그리고 외부 업무 처리를 맡고 있습니다. 아들이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더 좋은 축산인이 되게끔 하고 싶습니다. 가끔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지만 대화로 많이 풀어나가는 편입니다.”

현재 가족들은(며느리와 손주 포함) 대전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데, 아들은 평일에는 대부분 농장과 함께 있는 집에서 다른 3명의 직원들과 함께 숙식하며 농장을 돌보고 있다고 했다. 종종 그랬다며 자돈사에 들어앉아 아끼돼지들을 가까이서 살피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아들. 이만하면 목표의식도 뚜렷하고, 돼지에 대한 애정도 강해 잘 한다 잘 한다 할 법도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아들인가보다. 비법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그의 생각이 묻어났다.

“열심히 하는 게 비법이라면 비법이겠네요. 돼지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에게도 가능한 돼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얘기하자면 휴약 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등지는 하는 매뉴얼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그였지만 매달리는 데는 장사가 없는 법. 질문을 잇다보니 가장 큰 비법은 따로 있었다. 바로 철저한 규격관리.

“160일령부터 눈으로 보아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 골라냅니다. 돈방에 넣을 때도 크기별로 맞춰 넣으려고 합니다. 더 빨리 크는 것들과 덜 크는 것들을 나눠놓고 각각에 맞춰 비육하는 거죠. 규격관리도 하나씩 체중을 재기며 체크하고 기준을 넘는 것들만 골라 출하합니다.”

실제로 둘러보니 아예 자돈사부터 어느 정도 규격을 고려해 관리하고 있음을 쉽게 눈치 챌 수 있었다. 160일령부터는 주1회씩 체중을 일일이 확인한다니 그 열의가 놀랍다.

“2016년,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언제나 농장 안정화가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장규모나 기타 경영상의 문제로 암수 분리 사육을 못하고 있는데요. 굳이 2016년이 아니더라도 여유가 생긴다면 분리 사육을 하고 싶습니다. 사육두수 규모를 늘리거나 아예 농장 하나를 따로 확장해 내 가축질병의 위험 부담도 줄이고, 암수 분리 사육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습니다.” **동일선**